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가족 돌봄 강화

기저귀 갈이대 설치 등 이용자 편의 향상
자녀·양육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영·유아 양육 군민 누구나 월~금요일 이용
쾌적한 공동 육아 실현 돌봄 공간 제공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본격 운영돼 무안군민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하고 가족 돌봄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북합문화센터 1층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지난 2023년 신한금융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공모사업에 선정돼 7300만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를 지원받아 조성됐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1만3756㎡ 규모로 놀이·활동공간, 프로그램실, 수유실, 영·유아 전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 양육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 소독기, 기저귀 갈이대, 수유소파 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공동 육아를 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하며 돌봄 품앗이 활동, 자녀와 양육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무안군 제공

다.

시설 이용은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무안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이웃이 함께 자

녀를 돌보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안군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족복지의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목포시,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
이론 교육 실습 병행

목포시는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격년으로 진행되는 정기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목포시보건소 주관 아래 목포소방서, 목포경찰서 및 타 시·군 생물테러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뤄졌다.

훈련은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목포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해 해외우편물 출동 사례 등을 통해 실제 대응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실전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훈련에서는 베테랑 구조대원들이 직접 레벨A 보호복의 기능과 사용법을 설명하고 작탈의 과정을 시연해 현장감을 더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실효성 높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대기배출 측정기 설치 비용 지원 영암군, 23일까지 신청

영암군이 중소기업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예산은 2억4840만원이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사업장 대기배출 시설에 쓰이는 사물인터넷은 전류, 온도, 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5년 안에 정부 지원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설치하거나 신규 설립된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사업장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영암군 환경기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도군, 고향사랑기부 연말 이벤트 답례품 꾸러미 추가 지급 등

진도군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를 대상으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기부자들에게 12월 한 달간 200개 한정 수량으로 진도군 답례품 꾸러미를 추가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해 진도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총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에서는 쌀, 울금, 구기자, 미역, 전복, 꽃게 등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지역 상품권, 관광상품 이용권 등 24종의 답례품을 선정해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들이 지난 5일 일로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김장 김치를 만들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김장김치 나눔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5일 일로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9일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회원 50여명이 함께 모여 총 800포기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관내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김영숙 일로읍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위를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한 김치가 관내 이웃에게 전달돼 겨울

나기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고 말했다.

김진만 일로읍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신 새마을부녀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일로읍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지역 생물다양성 홍보 강화

신안군은 지역 내 곤충 분포 실태와 효과적인 생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신안 곤충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홍보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안군에는 총 14목 138과 1068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23년 조사 결과보다 5과 169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 닳뚜니길얇잡이, 2급인 애기뿔소뿔구리와 물장군 3종, 국내 미기록종 4종(Macroglossum fritzei, Ophiura olista, Avatha discolor, Sinibotys butliri) 등 7종의 새로운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류별로는 나비목 곤충이 702종으로 가장 많이 관찰됐으며 딱정벌레목(174종), 노린재목(88종), 메뚜기목(35종), 파리목(21종), 벌목(18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잠자리목(9종), 풀잠자리목(8종), 사마귀목(5종), 바퀴목과 집게벌레목(각각 2종), 다듬이벌레목, 대벌레

목, 뱀잠자리목(각각 1종) 등 다양한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서 생태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신안 곤충을 주제로 한 도서 발간과 국제 홍보 자료 제작에도 활용해 지역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도서 산림습지라는 특수한 서식 환경으로 인해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인위적 간섭으로부터 지역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심도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 혈관건강 관리교실 운영
고혈압 질환 예방

강진군보건소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버청춘 혈관건강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총 4회에 걸쳐 24주간 80여명에게 제공됐으며, 고혈압·당뇨 및 심뇌혈관 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관 관련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운동을 진행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습 중심의 저염식 및 균형 잡힌 식단 요리, 운동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어르신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강진군보건소는 혈압 측정, 혈당 관리, 총콜레스테롤 측정 등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건강 관리를 도왔다.

한준호강진군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운복 기자